나주시, '축산악취 해결' 민-관 협의체 발족

전라남도 ·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농가 · 주민대표 등 참여

10월까지 봉황면 소재 축사 5개소 대상 상시 현장방문 ·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국 10개 축산 악취 지역에 포함된 나주시가 효율적인 악취개선을 목표로 한 공식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라남도 · 나주시 축산(환경)관리부서, 축산환경관리원(악취개선T/F팀), 축산농가, 주민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나주시 축산악취 개선민 · 관 협의체'가 최근 발족됐다.

협의체는 오는 10월까지 봉황면 소재 양돈농가 5개소를 개선농가로 지정, 악취 원인 진단을 위한 상시 현장방문과 컨설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악취관리계획서 작성 등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개선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고속도로 · 혁신도시 · 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악취 개선의지가 강한 10개 축산 악취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농림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분뇨발생 외 악취발생 요인으로 축사 형태(개방형 · 밀집사육), 분뇨처리 및 환기 시스템, 퇴비 유출 등을 진단했다.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악취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있어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라며 "악취개선 민 · 관 협의체의 컨설팅과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악취문제를 뿌리 뽑고 주민 민원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 '필암서원 세계화'에 3년간 100억원 투입한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최종 선정

장성군이 전라남도의 대규모 지역발전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 선정으로 군비 포함 3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성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성리학자인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년)를 제향(나라에서 지내는 제사)하는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사회 · 경제상과 학자들의 생활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손꼽힌다. 지난해 7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인 가치를 공인받은 바 있다.

장성군은 필암서원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서원과 선비 문화를

'하서 김인후' 제향 하는 곳

선비문화 세계화 본격 추진

서원스테이 · 기록 전시 등

세계에 알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모사업에 참여, 15개 시 · 군과 각축을 벌인 끝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원 스테이(stay)' 사업이 주목된다. 군은 방문객들이 서원에 머물며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근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기존의 유물전시관을 '종합기록관'으로 탈바꿈시켜 전남 지역 서원의 기록을 보존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장성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추진된다. 전통시장인 황룡시장 등 지역 자원을 연결해 선비 요리교실, 전통공예 체험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필암서원 세계화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은 2030년까지 106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563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전남 서원의 최북단에 위치한 필암서원이 전남 지역 서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문불여장성의 전통이 서린 선비정신과 필암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추경

침수피해 가구 · 상가 재난지원금 1백만원 군비 지급

구례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추경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된 3,25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3,1%억원, 특별회계 62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와 상가에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3억원, 자원봉사자 · 군인 등 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비 7억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해 · 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하였다.

구례군은 국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금번 집중호우로 주택 · 상가 침수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가구별로 재난지원금 1백만원을 군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례군의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군민들에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코로나19 예방 · 수해 피해에 큰 힘"

담양군은 21일 명문요양병원이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장, 해양에코그린(주)이 300만원 상당의 소독약품 60통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과 해양에코그린(주) 강지훈 대표, 이홍식 기술고문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침수된 지역의 감염병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며 "수해 침수 지역 발생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태고자 방역물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집중호우 및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코로나19 이재민 구호 총력

건강 지키기 · 생필품 지원 등

곡성군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재민들의 건강 지키기 및 생필품 지원 등 구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폭우로 곡성군에는 99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곡성군은 한순간에 거처를 잃은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 대피소(임시주거시설)를 마련해 대응했다. 복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상당 수의 이재민들은 자택으로 귀가했고, 20일 기준 곡성군에서는 98명의 이재민이 4개의 대피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피소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코로나19 예방수칙에 의하면 '3밀(밀폐, 밀집, 밀접)'에 해당하는 장소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곡성군은 이재민들에게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며 의견을 물었고, 이재민들은 자체적으로 회의한 결과 자가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민 A씨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과 생명이 먼저다. 우리 자신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자택으로 귀가하는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매트, 모포 및 이불, 모기장, 라면, 생수, 전기밥솥, 버너, 쌀, 반찬 등 생필품을 비롯해 필요 시에는 텐트까지 제공했다. 또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수시로 살피며 이재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챙기고 있다.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 요구 시 최대한 빨리 대피소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주민들께서도 건강과 생명을 위해 불편함을 잘 감수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 생필품 지원을 비롯해 이재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